

'20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020. 10. 22 / IR그룹)

1. 1PAGE. 연결 손익 – 연결손익 종합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입니다.

당사 2020년 3분기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적 자료 1페이지입니다.

당사는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5조 682억원, 영업이익 1,071억원, 순이익 55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교역 위축 국면과 가스전 정기 유지보수 등으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철강 제품 및 원료 중심의 트레이딩 회복세에 매출 5조원과 영업이익 1천억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딩 부문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지난해 3분기 483억원에서 금년에는 54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중심, 부실 최소화를 위한 트레이딩 사업구조 전환 전략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일부 신흥국 자산에서 현지화 절하로 인한 환관련 손실 121억원 발생하였으나, 향후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 및 통화가치 정상화 시 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2PAGE. 연결 손익 상세

다음은 상세 **연결손익**입니다.

실적 자료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1,071억원은 트레이딩 등 543억원, 가스전 528억원 으로 구성되고,

**트레이딩 등 543억원은 본사 Trading 391억원
자회사 152억원**으로 구분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 지속, 글로벌 자동차 감산 등의 영향으로 화학, 자동차, 비철 사업의 부진은 지속되었으나, 중국 철강시황 회복에 따른 중국향 철강원료 공급 확대 및 국내 E-Sales 판매 확대 등 철강 호조세에 힘입어 견조한 이익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미국 법인의 소송 합의금 회수 등 일회성 이익과 IPP 사업 및 우즈벡 면방 등 일부 캐쉬카우 투자법인의 견고한 실적에 힘입어 **152억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성수기인 동절기 진입 전 안정적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약 20여일간 정기 보수를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3분기 판가가 전분기 비 약 6% 하락함에 따라 전분기비 359억원 감소한 **52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외비용 설명 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PAGE. 연결손익 상세

영업외손익중 금융손익은 **317억원**이었는데, 순이자비용은 Libor 금리 하락 영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세를 이루어 이번 분기 **17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환관련손실은 **140억원**으로, 인니 팜 사업과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사업에서 **환관련 손실 12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팜 사업 및 곡물터미널의 9월말 달러차입금은 약 2억 달러이며, 높은 헷지 비용과 만기가 다소 길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헷지를 서두르고 있지 않아 환포지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현지화 환율이 회복되면 지난 2분기처럼 이익으로 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손익은 미얀마 육상 가스관에서 101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반면, 암바토비 광산에서 9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손익은 **12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손익은 미국내 철강 관련 소송 승소 등에 따른 일회성 이익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수익성지표를 설명드리면

ROE는 순이익 호조세가 이어지며 **9.2%**, **EBITDA**는 **6,2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환산시 약 8,400억원 수준이며,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사상 첫 8천억원 돌파를 이뤄냈던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8천억원 달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3PAGE. 재무상태

다음은 3페이지 요약 재무상태표입니다.

'20년 3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8조 8,374억원이며,
부채는 5조 6,406억원,
자본은 3조 1,968억원 입니다.

특히 장기/저수익/고위험 거래 축소에 따른 매출채권, 재고자산 관리 강화로
무역활동 자산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운전자본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현금중시 경영활동 강화로 재무구조 건정성도 제고되어
부채비율은 전년말대비 17.5%포인트 감소한 176.4%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상사라는 업태 특성상 영업활동 자산, 부채가 과도하여
200%를 상회하였던 부채비율은 170%대까지 하락하였고,
순차입금의존도 역시 26.6%로 전년말비 5.5%pt 감소하며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ebt to EBITDA도 3.8배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 4PAGE.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다음은 주요 사업부별 3분기 실적 및 전망입니다.

철강사업은 에너지강재, 조선, 자동차강판 판매 부진에도 중국 철강 시황 회복에 따른 원료가 상승 및 중국향 원료 판매 확대 E-sales 플랫폼 활용 박판 내수 트레이딩 확대 등에 힘입어 **판매량 716만톤, 매출 2.6조원, 영업이익 34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철강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고, 포스코 그룹 해외 마케팅 최적화에 따른 그룹사 판매 물량 통합으로 당사는 최대 철강재 300만톤 이상, 원료 700만톤 이상의 물량 확대를 기반으로 구조적 성장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인프라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미얀마 가스전의 이익 감소 영향으로 **매출 3,059억원, 영업이익 47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9월초에 공급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20여일간의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여일간의 공급 차질에도 계약 물량인 일 평균 5억 입방피트 공급을 달성할 만큼, 중국은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저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3분기 판가는 전기비 6% 하락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스전 2,3 단계 투자 지연으로 투자비 회수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익이 부진하였으나,

6. 4~5PAGE.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21년 이후 2,3 단계 투자 활동 재개를 바탕으로
투자비 회수율 정상화 등에 힘입어
가스전 이익은 향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얀마 가스전의 2, 3단계 투자비 및 추가 시추 투자비는
총 9억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량소재본부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 단가 하락,
글로벌 자동차 시황 부진, 식량 비수기 진입 등으로
트레이딩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비, 전년 동기비 모두 하락한 **1.6조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수기임에도 **식량** 사업이
미국, 중국향 대두 및 옥수수 판매 호조를 보이며 선전하였으나
사업실 전반 부진이 계속되며 **4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의 마케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의
연간 계약 물량이 내부 목표치인 180만톤을 달성하였고,
올 한 해 **인니 팜 사업**의 **영업이익**이 190억원에 달하는 등
식량 사업 전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당사의 전략 방향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연계 식량 트레이딩 물량을
750만톤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소재, 전기차 부품 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로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 5PAGE.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자회사 관련해서는 **무역법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관련 소송 합의금 수취 등으로 73억원의 이익을 달성하였으며

투자법인에서는 LAE IPP, 우즈벡 면방법인 등의 호조세로 79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며,
전체 무역 및 투자법인에서
총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4분기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 및 글로벌 경기 우려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신규 자산 활용 확대를 통해 이익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분기 실적발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